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의 개발요소별 이용 만족도의 차이

장병문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Differences of User's Satisfaction in Development Element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Developed by Public and Private Body

Chang, Byung-M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user's satisfaction of development element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NRF) developed by public and private bodies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differences of user's satisfaction of development elements of NRF?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mechanism of outdoor recreation, and development elements in NRF, we constructed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have formulated the hypothesis of this research. We had obtained data through a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584 visitors at 10 of the 72 natural recreation forests in Korea in 1999. We have analyzed the data using the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 the mean differenc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method.

We have found that 1) all the development elements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mean difference test, 2) the two elements of atmosphere and activity have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difference of NRF developed by public and private body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le user's satisfaction in recreational resources, facilities and service make no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NRF, 3) the higher the degree of user's satisfaction in atmosphere and activity at NRF, the more the NRF developed by private body, and 4) their relative contribution of atmosphere and activities on whether the NRF is developed by public or private body have been turned out to have 0.258 and 0.242 respectively, which have a similar importance.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a guideline for the creation of marketable NRF by public and private developer, and development of use-programs and recreational atmosphere be recommended i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of NRF.

The approach and analysis method adopted by this research is highly useful for an evaluation of NRF developed by the two bodies and development of devices for increasing user's satisfaction and marketing positioning of NRF by the two developers. It is recommended that more empirical study on individual development elements affecting user's satisfaction be performed in the future.

Key Words : Developer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User's Satisfaction of Development Elements, Mechanism of Outdoor Recreation, Motivation of Developer

I. 서론

급증하는 여가수요에 부응하여 자연휴양림이 새로운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1988년부터 국·공유림에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 것을 효시로 산림법의 정비를 통해 휴양림조성의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하여(산림법, 1990. 1. 13.; 동 시행령, 1990. 7. 14.; 동 시행규칙, 1990. 7. 14.;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예규 제 474호, 1998. 7. 6.), 2000년 11월말 현재 사유림 14개소, 공유림 41개소, 국유림 28개소로 총 83개소가 조성되어있다(www.foa.go.kr).

현행 산림법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3주체가 휴양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들 주체는 각기 동기와 역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면적기준이나 민간주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휴양림이 조성되고 있다.

휴양림조성에 있어서 개발주체별 행태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의 입지적 특성, 개발규모, 각종 지원 및 조성방침 등에 관한 개발주체별 정책방향과 개발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공 휴양림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나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민간 휴양림은 지나친 이윤추구를 도모한 나머지 상업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귀중한 자연자원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휴양의 공급체계의 관점에서 자원, 시설, 서비스, 분위기, 활동과 같은 휴양림의 개발요소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개발주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휴양림 개발에 있어서 개발주체별 역할을 구명하고,

휴양림 마케팅을 위한 지식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① 휴양림의 시설 및 이용 만족도(김태진, 1994; 박선희, 1999; 장병문, 2000; 조주형, 1995), 휴양자원의 요소(장병문과 서정희, 1999), 개발요소와 만족도(장병문, 2001), 휴양림의 유형별 만족도(박종성, 2001) ② 자원, 시설물 등 개발주체별 차이에 관한 연구(장병문과 서정희, 2000; 장병문과 배민기, 2001) 2가지 범주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행태적으로 상이한 개발주체간에 개발요소별 만족도의 차이를 구명한 연구는 없었다. 그 결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휴양림의 개발요소에 대한 개별적 만족도가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평가되지 못하여 만족도의 향상과 개발주체별 행태적 차이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의 개발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연구의문에 해답을 제공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간에 자원, 시설, 서비스, 분위기, 활동 만족도의 차이를 구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발주체간의 개발요소별 이용 만족도에 입각한 합리적인 휴양림의 조성방향의 모색과 개발주체별 마케팅 포지셔닝에 활용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자연휴양림의 의의

휴양림은 민간주체 혹은 공공주체가(산림법 제 31

조) 휴양자원을 바탕으로 기본시설과 특수시설을 구비하여(산림법 제 31조: 동법 시행령 제 32조), 이용자에게는 각종 옥외휴양 환경과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 소유자에게는 산림의 다목적 경영을 기하도록 하는 체제형 이용자(Mayo and Jarvis, 1981)들의 여가활동 장소이며, 동시에 자원의존형 휴양지이다(Clawson and Storddard, 1960; Gunn, 1994; 박석희, 1995).

2. 자연휴양림의 개발주체

1) 휴양림의 개발은 국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와 공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공공주체(산림법 제 31조) 그리고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주체가(산림법 제 3조 3호) 할 수 있다(산림법 제 31조 3항). 공공주체는 민간주체에 비해 이익성의 확보에 유리하며(이미혜, 1999: 374), 민간주체는 공공주체에 비해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종합적 개발이 가능하다(김사헌, 1999: 240-241).

2) 공공주체의 휴양림의 조성 동기는 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속성과 규모의 경제성에 있으며(김사헌, 1999: 236-239), 휴양림의 조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민간주체의 휴양림 조성의 근본적인 동기는 이윤추구에 있으며(김사헌, 1999: 240), 국가, 공공단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3)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주체와 민간주체는 정부와 입업진흥기금으로부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 보조받을 수 있다.(윤성식, 1998: 160-162; 산림법 제 109조: 동법 시행령 제 108조의 2) 이에 추가하여, 민간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운영경비(청소년기본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2)의 일부 및 토지·금융·세계 기타 행정 절차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청소년기본법 제 37조)

4) 휴양림 조성대상 산림의 면적이 공공 휴양림은 50ha 이상이고 민간 휴양림은 30ha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산림법 시행규칙 제 31조(농림부령 제1323호)), 그 외의 조성요건에서는 개발주체간의 차이는 없다.

3. 자연휴양림의 개발요소

자연휴양의 기구(mechanism)는 정적,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자원, 이용자, 계획의 3요소로 구성되며(Jubenville, 1976: 49-55), 이들 요소들간의 관계에 따라 동심원 모형(concentric circle model)과 체계계획 모형(systems planning model)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휴양기구를 구성하는 3 요소들간의 관계구명을 통한 계획체계의 한계를 설명하며, 이용자-자원 관계모형이 대표적인 것이다(Jubenville, 1976: 49). 체계계획 모형은 동심원 모형에 외생변수들이나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하나의 개방체계로 휴양공급체계를 이해한다.

휴양요소의 구성요소인 자원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휴양경험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Jubenville, 1976: 48). 휴양림의 자원은 자원요소별로 볼 때, 물·계곡, 지형을 제외한 여타의 자원요소들은 공공 휴양림이 민간 휴양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장병문과 배민기, 2001: 30-48).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휴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집행,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요소를 지칭한다.(Jubenville, 1976: 52) 계획과정에서는 자원의 특성에 입각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휴양활동을 지원할 각종 시설물의 공급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요구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휴양림을 관리하는 일이 핵심을 이룬다. 개발 주체별 휴양림의 시설은 질적으로는 공공 휴양림이 민간 휴양림에 비해 우수하고, 양적으로는 기본시설은 공공 휴양림이, 특수시설은 민간 휴양림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장병문과 서정희, 2000: 39-52).

휴양활동에 있어서 안내, 활동, 관리를 위한 각종 서비스는 휴양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신원섭, 1998:155). 분위기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이용질서, 이용자들간의 관계, 이용자와 자원간의 관계, 시설과 시설

의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며 이는 휴양림 계획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발요소이다. 광의의 분위기는 특정장소에서 이용시간에 발생하는 혼잡(Tarrant and English, 1996), 조우(Manning, 1985; Shelby and Heberlein, 1986), 밀도(Shelby and Heberlein, 1986) 등의 문제를 포함될 수 있다.

휴양활동은 이용자의 방문목적, 동반유형, 체재기간 등에 따라 특정한 휴양림의 자원과 환경해설, 자연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각종 이용 프로그램(신원섭, 1998)과 시설, 서비스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4. 자연휴양과 이용 만족도

1) 일반적으로 만족도란 평가주체인 이용자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휴양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Francken *et al.*, 1981; Ölander, 1977) 만족도는 크게 여가결정 요인, 여가활동의 특정한 성과(output), 안전성, 환경적 요인,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Havitz and Crompton, 1992)

2) 이용 만족도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과정 지향적 접근방법(process-forward approach)(Lounsbury and Polik, 1992)과 결과 지향적 접근방법(outcome-forward approach)을 들 수 있다.(Hunt, 1977) 만족도 평가는 기대와 이용후의 성취도를 평가방법, 이용 만족도 함수로 평가하는 방법(김용수와 김수봉, 1989), 산림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등 개별요소별로 평가하는 방법(김태진의 2인, 1993; 진향선, 1995),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평가방법(박승범의 4인, 1996; 박찬용, 1995) 등을 들 수 있다.

3) 휴양림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관련하여, 자원의 종류와 질(Connelly, 1987), 지형, 야생동물, 문화재·특산품, 기상, 경관, 소리·냄새가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장병문, 2000). 시설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별 평가(조주형, 1995; 박찬용, 1995; Connelly, 1987; 진향선, 1995), 서비스와 관련하여 항목별 서비스 품질, 특히, 정보제공을 통한 서비스(Gunn, 1994; 박선희와 박명

엽, 1999)가 중요함이 구명되었다. 분위기와 관련하여 전반적 분위기(Connelly, 1987), 기대혼잡과 실제혼잡 수준(유경주, 1992), 혼잡(진향선, 1995), 운영관리(김광래의 2인, 1988; 조주형, 1995; 이창현, 1997)가 중요한 변수들로 확인되었다.

4) 기존의 연구로부터 휴양림의 개발에 있어서 자원의 제특성(Connelly, 1987; Pigram, 1983; 허성재, 1996; Beard and Ragheb, 1980), 시설물, 서비스, 분위기, 활동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명되었다(장병문, 2001) 그러나 휴양공급의 차원에서 체계 계획모형에 따라 개발요소의 구명과 이들 요소별 이용 만족도가 개발 주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

III. 개념적 틀

1. 개념정의

본 연구에 사용될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개발주체란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단체를 말하며, 국가,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공주체라 하며 이들이 조성한 휴양림을 공공 휴양림이라 하고, 산림소유자 등 민간인인 경우를 민간주체라고 하며 이들이 조성한 휴양림을 민간 휴양림이라 한다.

- 이용 만족도란 이용자가 휴양림에서 각 개발요소에 대한 경험의 만족 혹은 불만족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한 값을 말하며, 자원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시설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활동만족도로 구분한다.

- 개발요소란 휴양의 기구의 구성요소인 자원, 계획,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출된 휴양림의 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자원, 시설, 서비스, 분위기, 활동의 5요소를 말한다.

2. 개념적 틀과 연구가설

이론적 고찰을 통해 휴양림 개발주체의 동기, 의사결정, 재원조달, 면적기준 등 조성상의 행태적 차이를 알

수 있었고, 휴양의 공급체계로부터 각 개발요소별 이용 만족도는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간에 차이를 그림 1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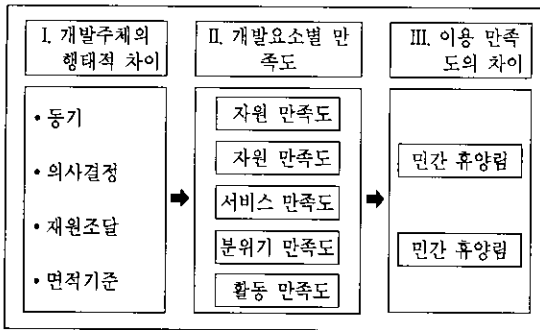


그림 1. 개념적 틀

1) 개발주체의 차이

휴양림의 개발주체는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로 구성되며, 행태적으로 휴양림 조성의 동기와 목적, 의사결정의 기준, 재원조달, 면적기준 등이 상이하다. 공공주체는 공익성과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하여, 정부의 일반예산, 보조금 등으로 국·공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한다. 공공주체의 특성상 영리추구보다는 자연휴양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기본시설의 설치에 충실하다. 민간주체는 자기자본으로 경제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하지만, 영리추구에 도움이 될 입장료, 시설 사용료 수입의 증대나 정부와 공공단체로부터의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치중할 것으로 판단된다.(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

2) 개발요소별 만족도

상이한 목적을 가진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은 휴양의 공급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과 각종 시설물은 양적, 질적 차이가 있으며(장병문과 서정희, 2000), 서비스, 분위기, 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개발요소들은 이용 만족도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행태적으로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간에는 서비스와 혼잡, 과일, 행락질서 등의 분위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결국 활동의 이용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이용 만족도의 차이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의 이용 만족도는 휴양림의 자원, 시설, 서비스, 분위기, 각종 활동에 대한 체험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발주체별 이용 만족도의 차이는 휴양림의 개발주체별 동기와 행태적 차이, 이로부터 연유하여 각 개발요소들의 차이를 가져오오는 이용자의 각 개발요소별 만족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3. 이론의 개념적 틀에의 기여와 변수의 구명

1) 개념적 틀을 정당화시키는 이론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의 이용 만족도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휴양의 기구 중 체계계획모형(systems planning model)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Jubenville, 1976: 48-55). 즉, 자원으로부터 자원, 계획으로부터 시설, 서비스, 분위기, 이용자로부터 활동의 5가지 개발요소의 이용 만족도를 찾을 수 있다.

2) 변수의 구명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고찰과 개념적 틀로부터 우리는 휴양림의 이용 만족도는 휴양의 기구로부터 자원 만족도, 시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활동 만족도라는 5개 개발요소별 이용 만족도에 대한 변수를 구명할 수 있었다. 이들 각 변수들이 개발주체별 이용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확인이 가능하다.

4. 연구기설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의 개발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의문에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개념적 틀로부터 “휴양림의 5개의 개발요소인 자원, 시설, 서비스, 분위기, 활동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가설의 검정을 통해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의 차이를 각 변수들의 영향, 방향, 크기, 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기와 목적이 다른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의 개발에 관한 지식을 얻고, 개발주체별로 이용자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휴양림의 조성과 관리방안의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IV. 연구 방법론

본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지의 선정, 표본추출의 방법, 변수의 측정, 자료수집절차, 분석방법으로 구성된다.

1. 연구 대상지 선정

전국의 72개 휴양림은 공공 휴양림이 62개소 민간 휴양림이 10개소이며, 500ha 이상의 대규모 휴양림이 34개소, 201ha 내지 500ha미만의 중규모 휴양림이 18개소, 200ha미만의 소규모 휴양림이 20개소이며, 대도시와의 거리가 120km 이상의 원격형이 31개소, 60km 이상 120km미만의 중간형이 21개소, 60km미만의 근교형이 20개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휴양림의 조성주체, 규모, 유치거리를 기준으로 비울적 층화추출방법(김광웅, 1976: 233)을 적용하여 공공 휴양림 7개소, 민간 휴양림 3개소를 선정하되 연구대상 휴양림의 규모별로는 대규모 4개소, 중규모 3개소 소규모 3개소이며, 유치거리로는 원격형 5개소, 중간형 2개소, 근교형 3개소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휴양림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표본추출의 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 휴양림에 대하여 자원 만족도, 시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활동 만족도는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된다. 먼저 각 휴양림별 표본조사 대상자 수의 결정은 각 휴양림별 평균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할당된 다음 조사자가 해당 휴양림의 이용자 중에서 무작위로 할당된 수만큼의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3.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개발주체(민간주체, 공공주체)는 명목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선정된 5개의 독립변수인 자원, 시

표 1. 연구대상 자연휴양림

	휴양림(소재지)	개발주체	면적(ha)	규모	유치거리	평균수용인원	할당된 설문대수
1	청옥산(경북 봉화)	공공	10,053	대	원격형	1000	80
2	칠보산(경북 영덕)	공공	10,904	대	원격형	800	64
3	청태산(강원 횡성)	공공	402	중	원격형	800	64
4	지리산(경남 함양)	공공	142	소	원격형	450	36
5	신불산(울산 울주)	공공	1,305	대	중간형	800	64
6	가곡(강원 삼척)	공공	9,969	대	원격형	500	40
7	회문산(전북 순창)	공공	290	중	근교형	400	32
8	간월(울산 상북)	공공	60	소	중간형	800	64
9	원동(경남 양산)	민간	75	소	근교형	1100	88
10	성수산(전북 임실)	민간	42	중	근교형	1600	128

설, 서비스, 분위기, 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는 점수 부과체계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10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절차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1999년 7월 영남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study)를 거쳐 완성되었다. 본 조사는 1999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16일 동안 해당 휴양림의 이용자중에서 할당된 설문지의 수만큼의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응답자가 설문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회수된 유효설문지 584매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5. 분석방법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개발주체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독립변수들간의 관계에 관한 모형이고 모든 변수가 등간 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SAS Ver. 6.12(SAS Institute Inc., 1999)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logistic regression method)을 수행하여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방향, 크기, 상대적 기여도를 검증한다.

V. 개발주체별 자연휴양림 이용 만족도의 차이의 분석

1. 단일변수의 통계적 요약

개발주체별 휴양림의 이용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들의 통계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종속변수인 개발주체는 총 응답자수 584명중 공공 휴양림의 이용자는 336명(57.53%)이고, 민간 휴양림의 이용자는 248명(42.47%)이었다.

독립변수인 자원, 시설, 서비스, 분위기, 활동에 관한 각각의 만족도의 통계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자원 만족도(REDS)의 평균이 6.223(표준편차=2.071)으로 나타나 휴양림 이용자들은 자원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만족도(FACS)과 서비스 만족도(SEDS)의 평균은 각각 4.770(표준편차=0.217), 4.450(표준편차=2.253)로 나머지 3개의 독립변수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차도 큰 편이다. 분위기 만족도(ATMS)와 활동 만족도(ATVS)의 평균은 각각 5.961(표준편차 2.128), 6.077(표준편차=2.066)로 유사한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휴양림 이용에 있어서 자원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활동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에 시설 만족도와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낮다. 분산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N
REDS	6.227	2.071	1.00	10.00	584
FACS	4.770	2.216	1.00	10.00	583
SEDS	4.450	2.253	1.00	10.00	582
ATMS	5.961	2.128	1.00	10.00	584
ATVS	6.077	2.066	1.00	10.00	583

2. 종속변수와 개별독립변수들간의 관계의 검정

휴양림의 개발주체라는 명목척도로 측정된 종속변수(0: 공공주체; 1: 민간주체)와 휴양림에 대한 5가지 만족도에 관한 각각의 독립변수들과의 관계에 관한 평균의 차이에 관한 검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민간주체와 공공주체간의 분산은 상이하다고 가정하여 개발주체별 휴양림의 각각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t-검정 결과를 보면 모든 독립변수가 1% 유의 수준에서 모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판명되었다. 즉, 휴양림에 대한 만족도는 개발주체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값의 부호가 모두 + 방향이므로 공공 휴양림에 대한 만족도가 민간주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값의 크기가 클수록 개발주체별 휴양림의 이용 만족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민간주체와 공공주체간의 분위기 만족도의 t-값이 9.449로 가장 현저한 차이가 있고,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t-값이 5.834로 나타나 비교적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mean difference test on user's satisf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developer.

Ind. var.	Dep. var.		Mean(SD)	t-value	df	Prob.
	DEV*	N				
REDS	0	336	6.667(1.928)	6.138	503.9	0.0001
	1	248	5.621(2.111)			
FACS	0	335	5.290(2.221)	6.930	557.9	0.0001
	1	248	4.069(2.012)			
SEDS	0	335	4.899(2.288)	5.834	557.5	0.0001
	1	147	3.842(2.059)			
ATMS	0	335	6.630(1.976)	9.449	532.1	0.0001
	1	249	5.060(1.992)			
ATVS	0	335	6.716(1.886)	9.229	516.7	0.0001
	1	248	5.214(1.985)			

*: 0: public body; 1: private body

3. 다변량 통계분석

1) 모형의 점검

개발주체별 휴양림의 개발요소별 이용 만족도 차이에 관한 다변량 통계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일반식은 $Odds = e^{z(=B_0+B_1X_1+B_2X_2+\dots+B_pX_p)}$ 이다.

이 식은 $Ln(odds) = Z = B_0 + B_1X_1 + \dots + B_pX_p$ 로 변환된다. 여기서, 은 종속변수의 값이 되고 휴양림 이용 만족도에 관한 5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된다(Table 4 참조). 일반적인 모형 적합도(goodness-of-fit)의 점검 방법을 통해 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평가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원리를 통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해하면 회귀모형에서 절편의 값만을 나타내는 즉, 총 제곱합(TSS)에 해당하는 절편값만 포함하는 함수의 -2

Log L의 값은 786.109이며, 오차 제곱합(ESS)에 해당하는 -2 Log L 의 값은 685.688이 된다. 회귀모형에서 회귀 제곱합(RSS)에 해당하는 Model Chi-square의 값은 100.421, $p=0.0001$ 로 나타나 이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유의성이 아주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다변량 F-검정에서 Model Chi-square의 값이 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R^2=0$ 이고, $H_0=\beta_1=\beta_2=\dots=\beta_n=0$ 이라는 두 개의 귀무가설을 동시에 검정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H_0 는 기각된다.

모형의 검정결과, 우리는 이 모형을 채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설명의 목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용되므로 모형의 선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a: Statistics for model test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Chi-Square for Covariates
-2 LOG L	786.109	685.688	100.421 with 5 DF ($p=0.0001$)
Score	-	-	93.045 with 5 DF ($p=0.0001$)

b: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p. var.: DEV (0: public developer; 1: private developer)

Ind. var.	B	S.E.	Wald	df	Sig	R	Exp(B)
Constant	-2.715	0.370	54.380	1	0.000	-	-
REDS	0.030	0.054	0.321	1	0.571	0.035	1.031
FACS	0.071	0.054	1.555	1	0.212	0.087	1.074
SEDS	-0.008	0.055	0.022	1	0.883	-0.010	0.992
ATMS	0.219	0.065	11.478	1	0.001	0.258	1.245
ATVS	0.212	0.066	10.344	1	0.001	0.242	1.236

2) 독립변수에 대한 검정

①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 $Wald = \left(\frac{B}{S.E.} \right)^2$ 값을 t-값에 유추하여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 분위기 만족도와 활동 만족도는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외의 자원 만족도, 시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휴양림의 이용은 자원, 시설, 서비스보다는 오직 무늬 활동을 했는가? 휴양활동에 어떤 분위기인가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② 인과관계의 방향: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방향은 Table 4의 B값의 부호를 점검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값이 갖는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해당 독립변수의 값의 증가는 민간 휴양림일 확률을 증가시키고, 음(-)의 값을 가질 경우, 공공 휴양림일 확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분위기 만족도, 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민간주체에 의해 조성된 휴양림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민간 휴양림이 다양한 시설과 영리목적이라는 동기에 입각한 휴양림의 경영의 결과로 판단된다. 즉, 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 민간 휴양림의 다양한 시설의 이용 가능성은 휴양활동의 기회를 증대시켜줄 수 있고 분위기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관리되거나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③ 인과관계의 크기: 각 독립변수의 인과관계의 크기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독립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는 종속변수인 $\ln(\text{odds})$ 값을 Table 4의 B값만큼 증가시키며 이때의 odds의 값은 $\text{Exp}(B)$ 의 값이 된다.

분위기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종속변수인 $\ln(\text{odds})$ 값을 0.219증가시켜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의 값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변수이다. 이 경우 $\ln(\text{odds})$ 값을 0보다 커지게 하여 민간주체에 의한 휴양림으로 개발될 확률을 높여주며, odds의 값은 1.245이다.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활동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종속변수인 $\ln(\text{odds})$ 값을 0.212 증가시킨다.

④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 : 독립변수들이 종속 변수의 값의 크기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는 $|R|$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분위기 만족도, 활동 만족도의 $|R|$ 값은 각각 0.258, 0.241로 분위기 만족도는 활동 만족도에 비해 1.07배 더 기여도가 높은 변수로 판명되었다. 분위기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개발주체의 값의 변화에 가장 높은 기여도를 가진 변수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 휴양림 개발요소들의 개별적 이용 만족도는 모두 공공 휴양림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발주체별로 휴양림의 개발요소별 이용 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분위기 만족도, 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민간주체에 의

해 조성된 휴양림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민간 휴양림이 공공 휴양림에 비해 분위기와 활동 만족도를 높이려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VI. 결론

1. 의 의

본 연구는 개발주체간 휴양림 이용 만족도의 차이를 구명하고자, 개발주체라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인 휴양림 개발요소들간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성, 방향, 방향의 크기, 상대적 기여도를 검정하였다.

2. 연구결과의 요약

개발주체와 개발요소의 두 변수간의 평균의 차이에 관한 검정에서 민간주체와 공공주체간의 분위기 만족도가 1%의 유의수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만족도와 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민간주체에 의해 조성된 휴양림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민간 휴양림의 분위기 만족도, 활동 만족도가 공공 휴양림에 비해 더 높다는 의미이다. 다변량 통계 분석을 통하여 개발주체간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개발요소는 분위기 만족도와 활동 만족도로 나타났다. 분위기 만족도와 활동 만족도는 종속변수의 값의 변화에 가장 높은 기여도를 가지는 독립변수로 판명되었다.

3. 연구결과의 시사점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이용자 만족을 고려한 관리전략을 세우는데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발주체별 차이를 결정하는 변수였던 분위기, 활동의 만족도 제고가 휴양림의 조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설물의 설치와 질적 향상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휴양 수요를 가진 이용자의 휴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설의 다양성과 휴양활동의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계획

적 노력이 요구된다.

휴양림의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이용을 통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휴양림 조성절차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분위기와 활동이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었다. 공공 휴양림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기본 시설의 설치보다는 활동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특수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4. 장차의 연구

분위기는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이용자들간의 혼잡, 과밀 등의 문제, 이용자와 자원과 시설간에 발생하는 자원훼손, 시설의 훼손의 문제, 관리자의 시설과 자원의 관리상태로 구분하여 미시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 휴양림의 분위기 만족도의 제고가 특히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동반유형과 방문목적, 활동 등을 고려한 시설과 분위기 조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요망된다.

인용문헌

1. 김광용(1976)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박영사.
2. 김사현(1999) 관광경제학신론. 서울: 일신사.
3. 김용수, 김수봉(1989) 대구시 도시공원의 성격에 따른 이용자 만족요인의 행태분석. 한국조경학회지. 17(1):17-27.
4. 김태진(1994) 자연휴양림 이용행태 및 만족도 분석. 휴양림 학술토론회 주제발표 논문. 숲과 문화 연구회.
5. 김태진, 김원명, 변우혁(1993) 자연휴양림 이용실태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자연자원논집. 33.
6. 박승범, 김승환, 남정철, 강영조, 양위주(1996) 이용자의 레크레이션 이용만족에 기초한 도시림의 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4):50-60.
7. 박석희(1995)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pp.47-53.
8. 박석희, 박명엽(1999) 유명산 휴양림의 이용 만족도. 한국관광지리학회 논문집. 11:167-189.
9. 박종성(2001) 이용자 평가에 기초한 자연휴양림 유형별 만족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박찬용(1995) 이용 만족도에 준거한 국립공원 관리의 지표

-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1):39-50.
11. 신원섭(1998) 야외휴양관리. 서울:ㄸ년.
 12. 윤성식(1998) 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13. 유경주(1992) 선호밀도와 혼잡지각이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미혜(1999) 관광개발론. 서울: 대왕사.
 15. 이창현(1997)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특성 및 이용행태분석 (II)-이용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임학회지. 86(3): 352-364.
 16. 장병문, 서정희(1999) 휴양 적합성이 영향을 미치는 자연휴양림의 자원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7(4):13-22.
 17. 장병문, 서정희(2000) 개발주체별 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차이. 한국조경학회지. 28(3):39-52.
 18. 장병문(2000)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휴양림의 자원요소 산림휴양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 4(3): 27-42.
 19. 장병문, 배민기(2001)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의 휴양 자원의 차이. 한국조경학회지. 29(2): 22-31.
 20. 장병문(2001) 자연휴양림의 개발요소가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29(3):19-28.
 21. 조주형(1995)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의 이용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진향선(1995) 자연휴양림의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허승재(1996) POE지표로서 이용 만족도의 한계와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2): 61-72.
 24. Breard, J. G. and M. G. Ragheb(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First Quarter.
 25. Clawson, M., Held R. and C. Stordard(1960) Land for the future. Washington: George Washington Univ. Press.
 26. Connelly, Nancy A.(1987) Critical Factors and Their Threshold for Camper Satisfaction at Two Campground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3):159-173.
 27. Francken, D. A., Van Raaij, and W. Fred(1981)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4).
 28. Gunn, Clare, A.(1994) Tourism Planning. 3rd ed., Washington: Taylor & Francis, pp.57-60.
 29. Havitz, Mark E. and John L. Crompton(1992) The influence of persuasive messages on propensity to purchase selected recreational services from public or from commercial supplie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1).
 30. Hunt, Keith H.(1977)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MA: Marketing Science Institute. pp.120-128.
 31. Jubenville, Alan(1976) Outdoor Recreation Planning.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pp.48-55.
 32. Lounsbury, J. W. and J. R. Polik(1992) Leisure Need Vacation Satisfaction. Leisure Science. 14(2): 105-106.
 33. Manning, R. E.(1985)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Search and Research for Satisfaction. Oregon: Oregon State Univ. Press.
 34. Mayo, Edward J. and Lance P. Jarvis(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Effective marketing and selling of travel service. Boston: CBI.
 35. Ölander, F.(1977) Consumer Satisfaction: A Septic View. Aarhus, Denmark: Institute of Marketed Sokopnomi.
 36. Pigram, J.(1983) Outdoor Recre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NY: St. Martin's Press.
 37. Shelby, Bo and Thomas A. Heberlein(1986) Carrying Capacity in Recreation Settings. Oregon: Oregon State Univ. Press.
 38. Tarrant, Michael A. and Donald B. K. English(1996) A Crowding-based Model of Social Carrying Capacity: Applications for Whitewater Boating Us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3).
 39. <http://www.foa.go.kr/>

원고접수: 2001년 8월 2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9월 13일

2인 익명 심사필